

를 따라다녔다고 한다. 이것은 저들이 그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졌거나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춘 계층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클로스를 당시의 지배층과 계속 대립시키는 서술법과 또 예수의 행태 중 저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예수에 대한 적대자들이 예수를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저들은 당시의 체제에서 정죄받고 소외당한 계층임이 입증된다.

끝으로 오클로스에 대한 예수의 행태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저들을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영접하며, 또한 저들에게 미래(하느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는 당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계층(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은 물론 탈예루살렘 종파(에세네, 세례자 요한파)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두드러진다(마태오, 루가복음에도 이미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오클로스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4. 예수를 따른 자들

예수를 따른 사람 또는 예수가 언급한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사회 계층적 측면에서 볼 때 분명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오클로스라는 전제에서 모범적으로 제시한 것이 마르코 2장 13~17절이다.

2장 13~17절의 분석 : 이 본문은 ① 13~14절과 ② 15~17절로 분리된다. ①은 “나를 따르라”(14절)가 중심이고, ②는 기쁨의 만

찬석이 중심인데(15절), 서로 독립적으로 전승된 자료들이므로 보인다. 이 둘을 연결시킨 것은 마르코의 편집적 작업에 의한 것이다. ①과 ②를 분리시키면 ②에서 레위가 세리인 것을 알 수 없으며, 식사 의미도 불투명해진다. 다만 이 둘을 연결할 때에만 이 이야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기쁨의 만찬으로 나타난다. 루가는 이런 의미를 뚜렷이 하기 위해 레위가 예수를 초대했으므로 한다(루가 5, 29). 또 ①에는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이 ②에서(15절) 등장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야기 전체에서 볼 때에는 레위가 장본인인데, ②에서는 그의 역할은 전혀 없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과 예수 사이에 일어난 죄인들과의 공동식사에 대한 논쟁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동기와 결과의 강조점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마르코의 편집구를 보면 오클로스 이해를 위한 하나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이 본문분석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많으나 13절과 15c절이 마르코의 편집구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13b절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모든 무리(*πᾶς ὁ ὄχλος*)”라고 하고, 15절 상반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은 예수와 그의 제자와 식탁을 같이했다고 한다. 15c절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랐다고함으로써 ‘세리나 죄인’이 오클로스의 범주에 속할 뿐 아니라, 그런 부류들이 압도적이었음을 강조한다.

마르코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곧 오클로스인데(2, 2·2, 4), 그중에 병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15회 언급) 그리고 저들은 배고픈 자들이었다(6, 34~35·8, 1 이하)고 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루가복음에 훨씬 많이 등장하는 과부도 그중에 포함된다(12, 41~42).

오클로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당시의

체제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중에서 몇 가지 부류의 성격만 밝히면 전체의 사회적 성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대로 마르코복음에서의 오클로스의 구체적인 부류로서 ‘세리와 죄인’을 들었는데, 이것은 Q자료(마태 11, 19)와 루가의 특수자료에도 나온다(루가 15, 1). 마태오복음에는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21, 31)라는 총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창기는 이른바 ‘죄인’의 범주에 두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죄인’이란 개념과 특히 직업을 표시해서 구별한 ‘세리’의 사회적 성분을 밝히면 오클로스의 윤곽이 밝혀질 것이다.

죄인(ἁμαρτωλός) : 예수가 ‘죄인’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가? 유대교 전통에서 죄인이라면 일차적으로 하느님 앞에서의 범죄자를 뜻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총칭이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등장 이후에 제사제급에 국한했던 제의적 의무, 즉 정결법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생활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른 양상이 빚어졌다.

예레미아스는 유다 사회에서 죄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한 사실을 지적한다. 하나는 일반이 공인하는 범죄자를 뜻하며, 또 하나는 당시에 규정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그는 이들을 구별하면서, 후자를 비도덕적 처세 또는 불명예스런 직업 때문에 일반에게 죄인으로 멸시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 죄인으로 규정받는 것은 그 직업이 직접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율법을 위반하여서이지 직업 자체 때문일 수는 없다. 가령 그 직업의 성격상 안식일에 쉴 수 없는 자(배꾼, 목자 그리고 창기 등) 또는 몸

에서 악취가 나거나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을 만져야 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령 가죽 만드는 자, 동 굽는 자, 도살자 등)들은 회중에서 소외되고, 예배참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아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그것은 병 들었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모두 죄인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유대교에서 병은 범죄의 결과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가령 시편 73편, 욥기 등)은 물론 신약에서도 그런 사고가 가지지 않았었다(요한 9, 12). 그중에서도 특히 나병환자, 혈루병자, 정신병자 등은 정결법과 직결되어 부정한 죄인으로 규정되었고, 저들이 겪는 고통은 천형(天刑)이나, 천벌(天罰)로 간주되었다. (Bill.). 저들은 의도적인 범법자가 아니다. 그들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했거나 혹은 밖으로부터 그렇게 규정받았다.

가난함도 이런 의미에서 꼭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가난이 안식일 법이나 정결법을 다 지킬 수 없게 하였다. 매일 일용할 양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기도제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매일’에는 안식일도 물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안식일에도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고,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들은 죄인으로 취급됐는데, 이것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에 의해 단죄된 것이다.

공관복음서 전통은 예수의 적대자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을 상징적으로 등장시키는데, 죄인이란 개념도 바로 저들에 의해서 통념화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바리사이 체제에서 죄인은 특히 정결법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그 영역이 확대됐는데, 그 결과 천한 직업, 가난함 그리고 병자 등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므로 직

법에 따른 규정이거나 이른바 ‘범죄자’이거나 간에 그 체제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저들은 율법을 범했거나 율법적 체제에 적응할 수 없었기에 죄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같은 경우의 양면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여인들 특히 과부나 어린이 등도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도 예수와 접촉한 민중으로서 예수복음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들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세리 : 한편 죄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달리 그것과 병행시켜서 부각시킨 것은 세리이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용법은 마르코뿐만 아니라 Q자료(마태 11, 19)와 루가 특수자료에 서도 볼 수 있다(루가 15, 1).

마르코복음에서는 세리에 대해서 2장 15절에서만 언급되는데, 그가 세리를 오כל로스로서 취급하고, ‘병자—죄인’이라는 통념 속에 포괄하고(13b, 17절), 예수를 따르는 자 중 그런 이들이 많았다고 한 지적(15a절)은 세리를 민중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세리를 예수의 민중으로 간주했다면, 그 민중은 민족주의나 경제적 측면에서 소외된 자로 국한할 수 없다. 세리는 로마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부류이며, 또 가난한 계층이라고 성격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르코는 세리 레위가 만찬에 초대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로 서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리의 성분을 일괄해버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중에는 치부한 자도 있으나 가난한 자도 있으며, 로마제국의 경제착취의 앞잡이로 청부를 맡은 층도 있으나

그런 자들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직책도 얼마든지 있었고, 저들 중에는 시간제로 고용된 자도 많았다. 이들이 모두 그 사회에서 ‘세리’로 취급되었는데, 그들이 무엇보다도 민족감정에서 소외된 것은 저들이 자주 이방인과 동일하게 지칭된 것에서도 볼 수 있다(이런 용법은 마태오에 있음. 5, 46~48 참조. 6, 7·6, 32·10, 5).

한편 Q자료로서 유명한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마태 11, 19; 루가 7, 34)는 마르코의 전승과 부합된다. 그리고 이런 부류를 포용한다는 것은 예수 당시가 반로마운동이 마침내 게릴라전 형태를 띠어 그 민족의 호응을 받는 때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세금징수를 전제로 한 호구조사 때부터 반기를 들고 주로 갈릴래아 지방을 본거지로 하여 세금납부 거부를 당면 투쟁목표로 했던 때이며, 라뻬 전통에서까지도 세리를 단죄하여 살인자 또는 강도와 함께 나열할 정도(*Ned* III, 4면 : *Bill*. I, 379면)였음을 상기하면 그의 미가 크다. 어째서 마르코는 이들을 오클로스의 범주에 포함시켰을까?

우선 그것은 예수전승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수전승의 특징은 그 동기가 어떻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멸시당하는 계층은 무조건 포용한다. 세리는 민족감정에서만 아니라 특히 종교 지배층, 지주 그리고 부상(富商)들에게 배척받았음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만 봐도 분명하다. 세리에게는 유다 경건생활의 하나인,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의 권리도 거부됐으며(BQ 10, 1~2), 유다 법정의 증인으로도 용납되지 않았다(Babylon Talmud).

죄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의 입장 : 마르코는 “왜 예수는 세리와 죄

인들과 같이 식사하지요?”라는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없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 16b~17)는 어록을 결부시킨다(후에 언급). 이로써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세리도 이른바 죄인에 포함시키고, 그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한다.

여기서 ‘부르러’(καλέσαι, to call)라는 뜻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루가의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한 죄인’ 또는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뜻과는 다르다(루가는 세리, 죄인 등을 많이 등장시켜 그의 관심을 표명하지만, 언제나 ‘회개한 죄인’ 또는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루가 15장 7, 10, 18절 참조). 이런 조건은 마르코복음에는 없을 뿐 아니라 ‘제자로서 부른다’는 뜻을 지닌 단어인 kales를 사용한다(1, 20·21 참조).

이런 기본적인 예수의 자세는 그 밖의 부류인 환자, 어부, 여인, 어린이 등에서도 동일하다. 세리는 저들과 다른 점이 많으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고, 따라서 멸시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 사실과 함께 예수의 제자 중에 세리와 함께 열혈당원도 포함되었다는 사실(마르 3, 18)을 감안하면, 예수의 민중에 대한 자세가 결코 정치구조 아래 눌린 자에 국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가 지평적 인간관계를 무시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치료한 병자들에 대한 예수의 행태가 보여주는 다른 면이다.

병자들 : 병은 다른 불행과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에서 온 벌’이라는 생각이 유다교에서는 자명적인 것이었다(J. Schniewind). 복음서에도 이런 사고의 흔적이 있다(요한 9, 1 이하의 제자들의 질문; 루가 13, 2; 마르 2, 5 등 참고). 이런 관념은 특히 정결법을 일반에게

확대한 바리사이파의 지도권 형성 이후에 뚜렷해졌다. 그러므로 나병환자, 정신병자, 혈루병자 등은 특히 소외되었다.

복음서에는 병자들이 무수히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에 저들은 가족과 그 동리에서까지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암시한다. 병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난 때문이기도 한데, 병자는 정결법에 저촉되므로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불행이 죄값이라는 관념은 저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도록 했다.

마르코 2장 5b절에 근거해서 예수도 이같은 전제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 마르코 2장 5a절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런 경우가 이 밖에도 두 번 더 있다(5, 36·9, 23). 그런데 이 믿음은 이른바 ‘속죄에 관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신뢰를 뜻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텍스트에서 죄 사함에 비중을 둔다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낡은 체제나 그것에서 이루어진 관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J. Schniewind 등이 이와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 9장 2~3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치병(治病)설화의 성격이다. 그 중에서 지적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방황하는 소외상태에 있다는 점이고, 또 예수는 치유 후에 대부분의 경우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이다(후자는 荒井 獻의 지적이다). 특히 2장에 치병설화가 집중되었는데, 첫째 설화인 나병환자 치유가 그 표본이다(『예수의 행태』, 40면 이하). 예수의 치병설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대상이 나병환자라는 점인데 그들이야말로 정결법에 의

해서 소외된 대표적인 병자이다(*Bill. I*, 474면에서 문헌 참조).

둘째, 그는 집 안에서도 격리되어 있었다.

셋째,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깨끗해진 데 대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치라고 지시하는데, 예수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그가 나병환자가 아니라는 확증을 받아 그를 소외시킨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바로 생존권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어린이의 경우(5, 35 이하 · 7, 24 이하) 또는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서술된 치유설화(3, 1 이하) 외에는 모두 “집으로 가라” 또는 “가라”로 끝난다(2, 11 · 5, 19 · 5, 34 · 8, 26 · 10, 52). 그중 5장 19절은 병을 고친 자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했다고 함으로 더욱더 “집으로 가라”는 예수의 의도가 강조되어 있다. 그것은 그에게로 ‘부른다’와는 다른 측면의 경우로서 이 사회로의 복권(復權)이라는 뜻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마르코복음 안에 있는 어록

2장 17b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어록은 예수의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not’과 ‘but’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but also’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는 결코 이른바 보편애(普遍愛)를 한 이가 아니며, 박애주의를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편애한 것이다. 그 대상은 어떤 조건에서든 눌린 자, 박해받는 자 들이다.

예수는 약자의 편에 선 이이다. 이 사실은 Q자료에서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